

강이야기

4

River & Culture



이 학 명 | 이학박사/고려대 수생태해설사 교수
 우리협회 하천환경위 부위원장
 (koreafish@hotmail.com)

학 명 : *Erythroculter erythropterus*

지역 방언 : 강우럭, 우레기, 백두루미, 강우어 등

분 류 : 잉어목 강준치아과

자생 수역 : 서해로 흐르는 하천의 중·하류

주 서식장소 : 물 흐름이 완만하고 수심이 깊은 곳

번 식 기 : 4~6월

크 기 : 50~100cm

강준치는 잉어목 강준치아과의 물고기로 성어는 통상 50센티 정도이나 간혹 1미터가 넘는 개체도 발견되는 민물고기로서는 흔하지 않은 대형어종이다. 강태공들의 손맛을 즐겁게 해주고 있는 물고기이나 이름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떤 이들은 강준치를 외국에서 들여온 물고기로 착각을 하거나 심지어 웅어와 혼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강과 금강 등 주로 서해안으로 흐르는 큰 강의 중·하류에서 낚시에 잡히는 강준치를 쉽게 볼 수 있다.

몸은 길쭉하고 옆으로는 마치 생선가게의 칼처럼 등 쪽에서 배 쪽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납작하다. 몸의 아래쪽 배 부분에는 끝이 매우 뾰족하고 날카롭게 생긴 부분이 배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 사이에 돋아나 있다. 이것을 칼날돌기라고 한다. 눈은 머리의 윗부분에 달려 있고 주둥이도 특이하

이학명의 자생어 칼럼 24

우리 하천 우리 물고기

날씬한 몸짱 - 강준치

게 위쪽을 향해 붙어 있다. 이는 물위에 떠다니는 먹이를 섭취하기 좋게 되어 있는 입 구조이다.

체색은 전체적으로 은백색이고 등 쪽으로는 은회색이거나 청갈색을 띠기도 한다. 20~30센티급 강준치를 관상어로 기르는 사람들이 있는 데 비늘이 잘아 빛에 반사되는 은빛 광채는 황홀감마저 든다고 자랑한다. 민물고기 동호회 회원들 중에 목회 일을 하는 최준치라는 어호(魚號)를 가진 목사분이 있는데 어항 속의 대형 강준치를 거울삼아 면도를 한다고 곧장 너스레를 떠신다.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강준치의 은빛으로 반사하는 몸체를 잘 연상하게 하는 말이다. 날씬하고 깨끗하게 생긴 강준치를 물속의 몸짱으로 불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것이 이 물고기는 다이어트를 하는 여성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몸에 군살이 전혀 없다.

강준치의 어린 치어는 몸이 투명하여 속의 뼈까지 훤히 보인다. 마치 열대어 글라스피쉬처럼 투명하다. 또한 몸 색깔이 푸른색이 도는 금속성의 빛을 띠기도 하여 그렇게 예쁠 수가 없다. 강준치의 어린 물고기도 대단히 우수한 관상어인 것이다. 어릴 때의 이 물고기를 강준치로 알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더군다나 한 무리씩 떼를 지어 헤엄치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과 같다. 강준치 같은 우리 물고기가 외래 관상어종들을 물리치고 우리네 어항에서 터를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홍보와 꾸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큰 개체는 성질이 급하고 비늘이 약해 낚시에 잡히면 잘 살지 못한다. 주로 큰강의 중·하류지역 물 흐름이 완만한 곳의 표층을 떼 지어 몰려다니길 좋아한다. 식성은 작은 물고기, 갑각류, 수서곤충 등을 잡아먹고 사는 육식성이나 관상어 수조에서는 일반 사료도 잘 먹는다.

우리말에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다. 그맛이 무척 뛰어난 물고기여서 이런 표현이 생겼을 정도. 이때의 준치는 바닷물고기 준치를 말하는 것으로 생김새가 강준치와 매우 유사하나 체고가 더 높으며 담수에서는 살지 않는다.

수생태복원시 강준치의 서식처는 2m 이상의 수심과 물 흐름이 완만한 수역을 조성해주면 될 것이다. 🌐

누치가리

우리 삶
삭막해져도
기댔만한 이념 하나
흰빛으로 우러나는
그런 세상 온다면

흐르는 것 모두
시나브로
썩어도
준치로
살아가고파



몸짱대회 출전 중? : 군더더기 살이 없이 날씬하게 생긴 강준치



관상어 강준치 : 몸이 희어 백어(白魚)라고도 하며 그 단아한 모습에 관상어로도 인기어종으로 점차 알려지고 있다.



한강 밤섬 : 강준치가 많이 자생하는 곳으로 생태계의 보고이다.



수산시장의 준치 : 강준치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바다에서 다른 어종이다.